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9월 7일(주일) 제1015호

행복한 2014 여름 아웃리치



서초A공동체는 남아시아B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연주(좌), 이연진 자매가 팀원들과 현지 어린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2,402명 해외 단기선교, 국내 아웃리치도 풍성 이제는 흘린 땀방울이 열매 맺도록 기도할 때

2014 여름 아웃리치가 막바지다.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복음 들고 열방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쳤다. 158개 팀, 2402명이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앞으로 4개팀, 46명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국내 아웃리치도 풍성했다. 공동체별, 순별로 전국방방 곡곡을 누볐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의 헌신적인 섬김에 지역교회는 물론 주민들도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하나 되어 흘린 땀방울이 열매 맺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다.

〈관련기사 4~7면〉

사회선교_세상을 섬기는 온누리①
» 2면

▷서초C공동체, 노숙인 섬기는 마태교회를 가다
“섬기러 갔다 은혜를 캐어요”



인터뷰_만나고 싶었습니다

» 8면

▷남양주 장경애, 박수진 부부(진접2순)
순맛춤전도는 하나님 주신 기회



▷9월 14일 봉헌하는 9월 비전헌금은 NGO더멋진세상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9월 10일 추석연휴 관계로 수요일전에 성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9월 14일) 신문은 추석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취재 및 편집기자 모집

▷자격: 온누리교회등록교인, 문서사역에 헌신한 성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기명기사, 포트폴리오

보내실 곳: 9월 16일까지 one@onnuri.org
문의: 02-3215-3193



| 특별기획 _ 세상을 섬기는 온누리 | 1. 노숙인 섬김 2. 홀로사는 노인 섬김

“섬기러 갔다 은혜를 컸어요”

서초C공동체, 마태교회를 가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명이 부르는 찬양소리가 건물 밖에서 또렷하게 들린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찬양소리는 더 커졌다. 문이 활짝 열려있고, 문 앞까지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여기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마태교회다.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노숙인들이 영상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노숙자 섬기는 교회

지난달 23일, 마태교회를 찾았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오셨나요?”

‘예수천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기자를 환영한 이는 마태교회 이원용 담임목사다. 안내를 따라 20평쯤 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40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열두 개의 침대 위에 놓인 옷가지들이 눈에 띄었다. 노숙인들을 위한 공간이 틀림없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다. 마태교회는 노숙인을 섬기는 교회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노숙인들 옆에 앉아 오늘 이곳을 섬기러 오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기다렸다. 카메라를 매고 있는 기자를 보고 노숙인들이 불편하면 어쩌지.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 지났을까.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다들 잘 계셨어요. 오랜만이예요.”

기타를 매고, 선물을 든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로 들어섰다. 서초C공동체 돌봄다락방 성도들이었다. 서초C공동체는 매월 마지막 주에 다락방별로 마태교회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다. 음식, 생필품, 의류 등을 챙겨와 나눠주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 특강도 하고 있다.

오후 3시20분. 서초C공동체와 마태교회 노숙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집사 한 명이 찬양을 인도했고, 설교는 양재 금홍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가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말씀이 본문이었다.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이 세상은 지뢰 천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한걸음씩 가야합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이정환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노숙인들이 말을 따라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따라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은혜로웠다. 서초C공동체 성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치과의사 윤여은 집사(서초C공동체)의 ‘치아 건강 특강’도 이어졌다. 노숙인들은 윤 집사에게 올바른 칫솔 사용법을 배웠다. 이번에는 소그룹을 만들어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초C공동체 성도 한 명이 조장, 노숙인 8-9명이 조원이었다. 그렇게 여덟 개의 조가 만들어졌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돈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의 소원이 담긴 기도제목을 종이에 적었다. 조장은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들고 각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조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자신과 서로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김희숙 권사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렴.”

김희숙 권사(서초B공동체)가 한 노숙인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넸다.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김 권사는 마주치는 노숙인 모두에게 안부를 물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역을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노숙인들의 개인사정까지도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머리 다친 건 괜찮아? 다 나았니?”

“일은 잘하고 있니?”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다가가는 김 권사를 노숙인들도 좋아했다. 서로를 대하

는 모습에 어색함이 없었다. 개인사를 묻는 질문도 거리낌 없이 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김 권사는 노숙인들의 절친한 친구 같았다.

김 권사가 노숙인들과 친해지게 된 것은 2012년부터다. 그녀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마태교회를 섬겼다.

“금홍사역을 함께 섬기던 집사님 덕분에 마태교회를 알게 됐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었는데 목사님과 노숙인들이 함께 먹고 자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여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가세요.”

양재 금홍사역팀은 2012년부터 마태교회를 섬기고 있다. 침대와 매트리스, 텔레비전 등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했다. 지금의 온전한 쉼터가 있기까지 힘썼다.

“어떤 이들은 노숙인들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면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김 권사는 지난 5월부터 마태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서초C공동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마태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향후에는 본래 섬기던 서울역 쪽방촌 사역을 할 계획이다.

공동체와 외부사역팀이 연결되기를

서초C공동체는 지난 5월부터 다락방별로 마태교회를 섬기고 있다. 11개의 다락방이 순차적으로 순환하며 봉사하고 있다. 서초C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사회선교위원회와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첫 번째 사례다. 앞으로 양재 사회선교위원회는 공동체와 외부사역팀이 잘 연결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날 섬김에 대해 최창수 장로(서초C공동체)가 소회를 밝혔다.

“섬기러 갔다 은혜를 컸어요.”

공동체와 열악한 환경에서 섬기고 있는 외부사역이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회의 좋은 섬김 모델이 될 것이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과 가이사

눅 20:19~26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배척을 받아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치를 떠난 종교 없고, 종교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을 굽는 것이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정치와 종교의 두 가지 잘못된 형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화된 종교입니다. 종교가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고 정치적 가치를 믿고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화된 종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화된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주장한다면 종교화된 정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두 가지 정치와 종교의 형태가 공존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치화된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절대화 되면서 시저를 신격화 했습니다. 정치를 종교화 시킨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정치화된 종교세력과 종교화된 정치세력의 사악한 연합과 동맹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교화된 정치세력과 정치화된 종교 세력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두 세력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위선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중요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종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을 맡은 종들이 소출을 받으려 온 종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치, 종교 세력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

를 말씀하셨을 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당시 정치, 종교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려고 계략과 모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버리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나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이고, 헤롯당원은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헤롯당원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세력은 서로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 되기 어렵지만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무섭게 하나가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로 교란시키는지를 보십시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

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20~22절).

그들은 거짓되고 위선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독과 꿀과 함께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지만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된 칭찬으로 예수님이 방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뾰흔 칼이었습니다”(시 55:21).

이 말씀은 그들의 말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껴담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도와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고래는 춤춰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바닷물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칭찬에 춤추면 큰일 납니다.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칭찬을 겁내야 합니다. 위선적인 칭찬과 거짓된 칭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간교한 속셈을 모르셨을까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1년에 한차례 인구조사를 해서 성인남녀 모두에게 1데나리온씩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시저의 얼굴이 박혀 있고, 동전 앞뒤에 시저를 신적인 아들,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있을 수 없는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게 함으로써 유대민족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을 시저에게 향하도록 만들려는 종교화된 정치 세력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라는 질문은 덫(trap)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금방 넘어가는 부비트랩(booby trap)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만약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헤롯당원들이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헤롯당원들은 친로마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양측의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은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덫(trap)에 놓였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덫(trap)을 넘어가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이 있으면 꺼내서 보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 온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일제히 데나리온을 꺼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다니요. 이것은 일종의 폭로입니다.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도 로마제국의 협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치다’는 단어는 가이사를 신처럼 섬기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치다’는 것은 ‘빛을 갚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시저를 신성시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불의한 모습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도로를 닦는 등 도움이 되는 일도 했습니다. 로마제국으로 인해 얻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저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간증 ■차세대 - 남아시아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미진 자매(유아3부 교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

우리팀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남아시아국 A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선교사님들과 청년 단기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 A지역에는 52개의 미전도종족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직 복음화 되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은 이곳에서 미전도종족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개척운동과 비즈니스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A지역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다. '절대적 믿음을 가진 저 많은 무슬림들을 어떻게 전도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일정이 시작되었다. 지역교회를 방문해 현지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위십과 특순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 되었다.

8명의 어린이들과 부채도 만들고 그림으로 사영리를 전했다.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했던 유아부 캠프처럼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졌다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다.

현지인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사역 중인 가정을 방문했다. 좁은 거실에 우리팀을 포함해 30여 명이 웅기종기 모여앉아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그들은 우리가 방문해준 것과 중보기도 해준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둘째 날, 두 가정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집에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가 다음 집으로 이동하려고 일어서자 옆집에 살고 있는 아들집에도 방문해줄 것을 부탁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부탁 받은대로 아들집에도 방문하게 되었다. 아들집 방문을 마칠 때 즈음 이번에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방문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원래 계획은 두 가정을 방문하



는 것이었지만 부탁을 받고 여러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졌다.

남아시아국에서는 외국인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 의심을 받는다고 한다. 추방을 당할 확률도 높다고 한다.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한국의 명절처럼 그곳 사람들도 친척집과 이웃집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우리가 무리 지어 다녀도 문

제되지 않은 이유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은혜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간섭해 주셔서 분쟁과 다툼 없이 사역할 수 있었다.

남아시아국 아웃리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아시아국을 향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더욱 기도해야겠다.

간증 ■노원공동체 - 경기도 옥계교회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수 집사(노원공동체)

다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매년 두 번의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노원공동체의 여름은 바쁘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오기 무섭게 국내 아웃리치 준비를 했다. 아웃리치 갈 교회를 정하고 회의를 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려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지난해 다녀왔던 경기도 연천군 옥계리에 있는 옥계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셨다. '왜?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옥계교회는 지역도 그렇게 낙후된 곳이 아닌데... '더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연천군 옥계리 지역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왜 그곳을 섬기기 원하는지 조금씩 깨달았다. 우리가 지난해 다녀온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보수, 의료사역, 이미용 봉사, 마을잔치와 복음전도를 했다. 지난달 8

일 교회보수팀은 선발대와 함께 아침 일찍 사역지로 출발했다. 높은 교회 천장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틀비계를 세웠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과 용기를 담아 열심히 칠했다. 전문가 못지않았다고 자부한다.

올해는 옥계 1리와 3리로 나누어 캠프를 진행했다. 3리 마을회관에서 식사와 행사준비를, 1리에서는 의료와 이미용 봉사를 했다. 과마를 하고 나오시는 할매니들께 직접 만든 시원한 팔빙수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했다. 또 침과 영양주사를 맞고 계신 할매니, 할아버지들 곁에 앉아 구원소식을 전했다. 1리 지역에는 지난해에는 오시지 않았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특별히 기억나는 어르신이 있다. 주인공은 신재관 할아버지인데 옥계리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 곳이나 세웠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 발걸을 끊고, 신앙생활을 은둔해서 하고 계셨다. 이창규 목사님과 전도팀



이 할아버지를 찾았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개 숙인 할아버지의 두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깊은 숨을 고른 할아버지께서 다시 교회에 가겠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곳에 머물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새로워진 예배당을 보며 옥계교회 박명원 목사님은 노원공동체에 감사함을 전했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다.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분을 보이신 장로님과 목사님, 사역에 최선을 다한 지체들의 노력이 만든 노원공동체의 3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일정은 끝났지만 우리들 가슴에는 그 기억이 소중하게 남아있다.

간 증 ■대학청년부 - 남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태운 형제(요셉공동체)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

나는 2011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신앙인이다. 그런 내게 올해 초 교회와 삶에서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7월, 전도사님이 뜬금 없이 나를 부르셨다. 남아시아B국 아웃리치를 가자고 제안하셨다.

매년 국내 아웃리치는 갖지만 경제적 사정을 보면서 해외까지 가서 사역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지금 일을 쉬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하지만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모임을 갔다. 기대가 컸던 것일까. 실망을 하게 되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팀이 구성된 상황이었고 팀원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웃리치를 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아웃리치까지 준비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원도 결정 되지 않아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우리가 가는 곳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걱정이 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과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웃리치 준비모임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과 상의하면서 어린이 사역과 대학생 컴퓨터강의, 문화사역을 준비했다.

팀원 한명이 더 줄어 결국 5명이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첫 해외 아웃리치에 올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아시아B국의 수도에서 조금 벗어난 가난한 동네 학교였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고 있었다. 말쑥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걱정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의 생각이 철저히 부서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기능하고 판단했던 모습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셨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자 나를 초대하신 것이다.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에서 고단함을 잊게 해준 맛있는 만찬을 먹었다. 전통 식단부터 남아시아B국의 일상적인 메뉴들을 알아가며 먹는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 매료되었다. 남아시아B국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깊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남아시아B국의 역사를 듣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생활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어색함이 사라졌다.



마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순간도 감사가 없는 시간이 없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남아시아B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부끄러웠다. 한국에서 신앙생

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복음을 전하러 온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사역 마지막 날 기도회를 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국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기도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간 증 ■서초A공동체 - 남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윤형 성도(서초A공동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셨습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7시30분, 서초A공동체 담임목사님을 포함한 25명의 공동체 식구들이 남아시아B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틀 전 먼저 출발한 의료팀 6명을 뒤따라가는 일정이었다.

남아시아B국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출국 전부터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통과되어 입국허가가 나 기만을 마음 졸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정 무렵 남아시아B국에 도착했다. 사역지까지는 다시 차로 세 시간을 달려야 했다. 3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나 QT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난 뒤 곧장 사역현장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사역할 곳은 병원이었다. 우리팀은 크게 의료팀(안과진료 및 수술)과 의료지원팀, 아동사역팀, 물류 및 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바라보는 현지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섬기다 가겠지’, ‘당신들이 뭘 얼마나 하겠나’ 하는 눈빛이었다.

사역 첫날, 안과진료를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안과라는 개념조차 없다. 작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역이라 일이 많았다. 백내장, 사시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하자 환자들이 무섭다며 달아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남자 환자들이 먼저 수술을 했다. 볼 수 있게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자 도망갔던 여자 환자들이 몰려와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과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100명, 사역 마지막 날에는 160여명의 환자들이 안과 진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고 앞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 수술을 앞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이어졌다. 준비실에서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이 임하도록 중보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수술을 받고 나온 환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술 받은 환자 중에는 스님도 있었다. 권사님과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의 마음이 녹았다.

사역 마지막 날 현지 선교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병원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은 이번 아웃리치팀이 처음입니다. 여

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아웃리치 주제 말씀인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간 증 ■강동 온누리교회 - 충북 보은 창성교회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두화 형제(강동 온누리교회)

처음 경험한 은혜 그리고 가슴 뭉클함

매년 여름이면 복음을 전하러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교회 다닌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나에게 아웃리치는 분명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기회가 되지 못해 아쉬웠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충북 보은 창성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교회에서 매년 가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던 것 같다.

지난해 아웃리치 팀장님으로부터 이번에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왔을 때 큰 기대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락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웃리치에 참여했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안일한 나를 대신해 아웃리치 가는 사위를 위해 장인장모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장인장모님의 기도 덕분일까.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가슴 뭉클한 감동도 선물 받았다.

우리 팀원들은 각자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효도사역과 의료사역, 그린사역을 실시

했다. 창성교회의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도왔다. 나는 TFT팀장을 맡았다. 팀원들을 돕는 역할이었다. 나는 교회봉고차를 자주 타아했다. 이 봉고차는 창성교회 함대봉 목사님만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함 목사님이 창성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도 했다.

함 목사님은 창성교회에 부임한지 15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사례비가 2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걸로 생활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지금은 두 배로 올랐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마을 주민들도 목사님을 칭찬했다. 믿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신다는 것이었다. 물질을 떠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함 목사님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함 목사님은 우리와 사역하는 내내 반바지에 낚은 구두를 신고 다니셨다. 혹시 운동화가 없는 건 아닌지, 사역하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렸다. 찬



양과 위심을 하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뜨거움도 느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함 목사님과 사모님께 운동화를 선물하고 싶

다고 말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참해 주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리치를 권하고 싶다. 나는 내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갈 것이다.

간 증 ■강동 온누리교회 - 일본 야마가타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임혜나 자매(강동 프라미스공동체)

백만불 짜리 미소

올 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아웃리치 일정표를 훑어보았다. 마침 내 휴가 일정과 일본 야마가타 아웃리치 일정이 맞았다. 평소 일본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터라 망설임 없이 아웃리치 참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나를 뒤덮기 시작했다. 예전에 갔던 아웃리치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명단에 내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니 두려움이 더 커졌다. 주변 친구들은 봉사능 피폭 위험이 있지 않느냐며 일본 아웃리치를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웃리치를 만류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 가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외면당했는데 너는 몇 일 동안의 소외감이 무서워서 안 갈 거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일본 야마가타 남부교회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4박5일 일정이 짧게 느껴졌다. "가서 뭐했어? 어땠어?"라고 아웃리치 다녀온 소감을 묻는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행복했다"고 대답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교제를 하고 왔다. 하나님과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였다. 물론 사역도 했고, 휴식도 취했다. 그 중에서 교제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 팀원들과 나는 교제, 남부교회 오카 목사님 가정과 나는 교제, 남부교회 성도들과 나는 교제, 우리 팀원들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신 토모코씨 가정과의 교제 등 하나도 잊을 수가 없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웃음이 넘쳐났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낯선 외국 사람에게 쉽게 집을 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선포 내어주었다.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 한 명은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우리와 함께 노방전도를 했다.

처음 야마가타 남부교회에 도착해서 오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곳의 느낌이 어떠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가타를 떠나올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 웃는 얼굴이 단순히 손님이 오셔서 보여준 미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백만 불짜리 진짜 미소였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내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답을 보여준 미소였다. '나도 남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살 수 있겠지?'라는 도전을 받았다. 그동안 안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반성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참 많이 행복했다.

간증 ■ 대학청년부 - 남아시아B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박준기 형제 (Pole2공동체)

아웃리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아웃리치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Pole2공동체에서는 남아시아B국, N국, F국에서 아웃리치를 섬기기로 했다. 아웃리치 팀원 모집이 시작되었다. 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남아시아B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내가 선택을 잘 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신청한 것이니 잘 다녀와야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갈 팀원들을 만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팀은 유독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남아시아B국으로 출발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웃리치를 가는 날짜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맡은 역할을 감당해냈다. 본부의 지시에 따라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다. 아웃리치 준비기간은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남아시아B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 일찍 공

향으로 출발했다. 막상 아웃리치를 가니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알아가게 하실까. 기대가 되었다.

남아시아B국에 도착해서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A지역으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해서 팀모임을 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팀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일예배를 섬기고, 평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했다. 준비한 만큼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보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팀원들은 하나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한 사고 없이 모든 사역이 진행되었지만 높은 기온 탓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지쳤다. 하지만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나 보다. 이곳에서도 팀원들은 무리 없이 아웃리치 일정을 진행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께서 우리 팀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목상했다. 우리 팀이 처음 모여 예배드리던 날, 전도사님께서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됨이였기에 더 뜻 깊었다. 각자 가진 재능도 성격도 상황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한 아웃리치였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나는 여전히 팀원들과 남아시아B국이 그림다. 그 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행복했던 아웃리치,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를 지켜야겠다.

간증 ■ 대학청년부 - 남아시아M국 |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고광범 형제(허브공동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잠 16:9).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번 아웃리치에 가장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아시아M국으로 아웃리치를 가기 전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처음 목사님이 내게 남아시아M국으로 아웃리치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고, 재정도 없었다. 목사님의 제안에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약함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친구들과 헤어짐을 자주 경험해야만 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길어야 2년이였다. 내가 떠나거나 친구들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이러한 헤어짐이 싫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벽을 두기 시작했다. 나를 숨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런 나에게 남아

시아M국 아웃리치는 부담스러웠다. 또 우리팀이 남아시아M국에서 주로 하는 사역이 전도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두려움보다 훨씬 강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걱정보다 크고 놀라웠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때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수많은 신들을 믿는다는 남아시아M국에서 많은 신당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전도를 잘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이 말씀을 붙잡고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힘들고 용기내서 말을 걸어 놓고 눈을 못 마주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아무리 용기를 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한계를 인정하고 쉬는 시간에 현지어를 급하게 배워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줄 아는 남아시아M국 말이라고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와 ‘예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뿐이었다. 그런데 이 두

마디 말만 전했을 뿐인데 기뻐하는 남아시아M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말 두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고, 구원의 확신을 품게 해주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아웃리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부족함을 신실하심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장경애, 박수진 부부(남양주 진접2순)



오는 22일부터 순맞춤전도가 시작된다. 이번 순맞춤전도에는 2000여 순이 참여한다. 남양주 캠퍼스는 지난 6월초에 순맞춤전도를 시행했다. 순맞춤전도에 참여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 주인공을 만나 순맞춤전도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순맞춤 전도집회를 준비해야하는지 들어 보았다.

오랜 기도의 응답

남양주 장경애 성도는 순맞춤전도를 통해 오랜 기도제목이 응답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순맞춤전도 초대에 응한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순맞춤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

순원들과 상의해서 순맞춤전도 장소를 그녀의 집으로 정했다. 딸네 집에서 모임을 하면 어머니께서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해서다.

“처음에는 정말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셨더라고요”

그녀의 어머니가 순맞춤전도에 참석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순 모임이 있던 날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순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증세가 호전되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녀 혼자 가 아니라 순원들이 함께여서 든든했다.

순맞춤전도를 위해 역할을 나눴다. 순장은 총 기획을 맡아 진두지휘를 했다. 영상과 음향, 음식준비, 선물 준비 등 순원들의 달란트에 맞게 역할을 분담했다.

순장의 인도로 순맞춤전도가 시작됐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긴장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순원들과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순맞춤전도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어머니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를

“순원들이 함께하니 든든해요”

순맞춤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위해 기도하며 한자 한자 적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음향을 담당한 순원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조명도 어두웠다.

몇 문장이나 읽었을까? 그녀의 눈에서 알칼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순원들 눈가에도 눈물이 촉촉이 고였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치고 계셨다. 두 장이 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어머니의 영접기도를 시도했다. 그녀는 어머니께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따라 해달라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쭉스러웠는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순원들이 나섰다. 어머니를 도와, 함께 기도를 따라했다. 순에서 준비한 예쁜 모자도 선물했다. 그녀가 어머니께 모자를 씌어드렸다. 그 모

습을 보고 있던 순원들의 얼굴에 어느새 환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순맞춤전도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어머니가 순원들의 안부를 묻는다고 한다. 순원들과 음식을 나누기도 한다.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성공적인 순맞춤전도를 위한 Tip〉

1. 대상자 상황에 온전히 맞춘 순모임
2. 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전화는 꺼두기
3.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중요
4. 대상자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

〈순맞춤전도 과정〉

기획	준비	순맞춤전도	사후관리
·전도대상자 선정과 파악 ·대상자에 대한 접촉점 발견	·중보기도 ·각 공동체 요청자 명부 작성 ·각 사역 분배와 준비	·9월 22일(월)~28일 ·순 사정에 따라 날짜 변동가능	·순예배소개 ·새신자 열린예배소개 ·새가족과정 소개 ·순맞춤전도결과 데이터베이스 작성

NGO더멋진세상_ 르완다를 가다

‘응호망과 마을’ 사역과 정경화 연주회 개최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부아프리카를 강타한 지난 여름, 위축된 분위기였음에도 NGO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봉사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르완다 응호망과 지역을 방문하였다. 응호망과 지역에 무니기나 보건지소(Munyiginya Health Post) 준공식 행사와 군병원 이동진료, 양계장 기공식, 모자보건 및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 질병예방 세미나, 말라리아 퇴치 모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제노사이드 20주년을 맞은 르완다에서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정경화(더멋진세상 봉사대사)의 바이올린 공연을 개최했다.

의료, 보건, 지역개발

25일 준공식에는 김광동 대표를 포함한 봉사팀, 르완다 주재 한국 대사관 황순택 대사, 르와마가나 예레미 시장과 보건소장, 군병원 관계자, 지역 리더, 주민 1000여 명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르와마가나 시장은 “의료시설이 없던 응호망과 지역에 보건지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잘 지키고 운영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광동 대표는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계장을 세우고, 식수개발, 학교 설립 등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한국의 발전 사례를 르완다에 적용해 이곳을 발전시켜가는 친구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에는 르완다 전통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주민들의 공연과 KOICA 단원과 현지인이 펼친 태권도 격파시범이 있었다.

또한 양계장 기공식과 질병예방 세미나, 군병원 이동진료가 열렸다. 600여 두 규모의 양계장은 한국에서 양계연수를 받은 이 마을 청년 2명이 맡아서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농 농법을 이용하여 토마토와 감자 농장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질병예방 세미나는 4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3시간 강의로 이루어진 세미나에는 모자보건, 구강위생,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강의가 가장



NGO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가 응호망과 마을 어린이에게 양치질 시범을 보이고 있다.

큰 관심을 모았다. 칫솔을 나누어주며 양치질 시범을 보여주는 구강위생 강의도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과 27일은 군병원 이동진료가 무니기나 보건지소에서 열렸다. 르완다 군병원의료진 10여명이 마을에 찾아와 진료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와 기다렸다. 진료 첫 날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서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진찰을 받으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 정경화 바이올린 연주회

이번 르완다 현장에 더멋진세상 봉사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함께했다. 봉사팀과

함께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모기장을 설치했다. 특히 ‘화해와 용서’를 주제로 한 연주회가 이번 행사를 더 아름답게 빛냈다. 인종간 화해이라는 이름을 위로하고 나라가 하나 되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연주회는 르완다에서 드문 역사적인 클래식 연주회였다. 르완다 정부 인사들과 외국 대사, 한국 교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특히 르완다 국민 ‘라마한가라’가 정경화 봉사대사의 바이올린 선율로 흘러나올 때는 현지 주민들이 감격해 하며 두 손을 들고 음악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고대선(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장)

차세대



영어 배우고, 말씀도 듣고

영어놀이학교 '드림시드'

차세대가 놀이하며 영어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드림시드(Dream Seed)다.

오는 9월 11일(목) 차세대 드림시드가 도곡 교육관에서 하반기 문을 연다. 드림시드는 24개월~7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놀이학교다. 다양한 영어활동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다.

드림시드는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교육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문이 열려있다. 아직 복음을 모르

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다.

드림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성장단계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체험 위주의 수업방식을 도입했다. 어린이가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부모와 성경적인 양육방법을 공유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돕기도 한다. 드림시드는 2년 과정이다. 봄과 가을 학기에 운영된다. 주회 수업이 10주 동안 이어진다. (어린이주간, 추석주간 휴강) 수업은 마음열기, 노래와 율동, 이야기 듣기, 소그룹 창작활동, 말씀 암송 찬양과 축복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박지혜 전도사(010-2886-3103)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사랑챔버

사랑챔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협연

스티븐 프루츠먼 교수와 미니콘서트



사랑챔버 오케스트라가 또 한번의 기적을 연출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븐 프루츠먼(Stephen Prutsman)과 협연을 했다.

지난달 28일(화)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이이홀에서 사랑챔버와 프루츠먼이 함께하는 미니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열한 살 된 자폐증 자녀를 둔 프루츠먼 교수가 교회를 감쪽 방문하면서 성사되었다.

스티븐 프루츠먼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재단(Autism Fun Bay Area)을 설립해 활발한 자

수 형제와 함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거슈인(George Gershwin)의 곡을 연주했다. 그는 사랑챔버 단원들과 함께 협연하며 단원들의 재능이 놀랍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티븐 프루츠먼 교수는 차이코프스키국제콩쿨에서 수상한 피아니스트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월드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인이다. '바흐&포스(Bach&Forth)'라는 이름으로 앨범도 발매했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내적치유학교

추천하고, 추천받고 싶은
'내적치유학교'

내적치유학교는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온누리교회 대표 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일 것 같지만 아니다. 타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더 많다.

지난달 8일부터 2박3일동안 파주제자수양관에서 제45기 내적치유학교가 개강했다. 104명이 수료했다. 45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들의 소회는 어떻게.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다. 전체 참가자 104명 중 103명(99%)이 다른 사람에게 내적치유학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내적치유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주변사람의 권유가 56명(54%) 절반

을 넘었다. 45기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이전 참가자들도 내적치유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교회 성도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 것이 인상적이다. 광주월광교회에서 15명이 단체로 참가하는 등 전체 참가자 중 타교회 성도가 53명(51%)이었다.

이외에도 내적치유학교 일정을 3박4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해 지방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나왔다.

한편 46기 내적치유학교는 오는 12월 5일~7일 개강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간증 • 내적치유학교를 마치고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단다”

/ 45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내 안에는 분노와 불평, 불만이 많다. 딸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초 회복사역학교에 갔다. 그곳에서 내가 분노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은 몰랐다. 그렇게 지내던 중 45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회복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참가신청을 했다. 내적치유학교 입학에 앞두고 나의 감정과 육체적 상태는 최악이었다. 바쁜 회사업무와 동료직원의 무시와 무례함, 상사의 질타, 딸의 흐트러진 행동,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로 인해 미워지는 남편 등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회사업무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3일 동안 편하게 쉬고 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45기 내적치유학교에 입학했다.

첫날부터 순간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안에 감동이 샘솟았다. '임마누엘 기도' 시간에 나의 어린아이를 만났다. 6살 꼬마인 나를 발견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간 추운 겨울날, 빨간 털모자를 쓰고 외롭게 서있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내 눈높이에 맞춰 앉으시면서 나를 안아주셨다. 그 포근하고 따스한 품으로

“예수님, 지금처럼 저하고 함께 계셔 주세요.”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단다.”

‘용서하기’ 시간에 용서편지를 썼다. 오빠에게 쌓여있던 마음과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증폭됐던 오빠에 대한 증오가 이해로 바뀌었다. ‘십자가 예수’에서는 내가 지은 죄를 중이에 적어 못 박았다. 두려워하기보다 새사람이 되도록 선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안광국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릴 적부터 갈급해왔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더 이상 광야와 같은 땅에 이 딸이 외로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때, 나는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외로웠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했다. 이렇게 큰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린 것도 처음이었다. 기도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무엇보다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을 고스란히

온누리워십·홀리임팩트, 라이브 앨범 발매

‘2014년 온누리워십 라이브 앨범’과 ‘홀리임팩트 화요성령집회 라이브 워십’ 앨범이 발매되었다.

지난 1일 발매된 ‘2014년 온누리워십 라이브’ 앨범은 창작 곡, 전통적인 찬양, 외국노래들로 구성되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앨범에 예배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5년 만에 앨범을 선보이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도 엿보인다.

‘홀리임팩트 화요성령집회 라이브 워십’ 앨범은 지난 2일 출시되었다. 화요성령집회의 뜨거운 예배분위기를 앨범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특히 타이틀곡이 눈에 띈다. 원유경 목사가 만든 곡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그린 노래다.

가격은 각 12,000원.

/ 박익새 기자



5년만에 발매된 온누리워십라이브 앨범

“더 빠르고 풍성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교후원사역부의 하반기 각오

선교후원사역부의 하반기 각오가 남다르다. 성도들에게 더 빠르고, 풍성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교후원사역부는 성도들이 선교지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선교후원사역팀은 하반기부터 긴급 기도제목을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기도편지는 나라별로 선교사 2~3명을 직접 인터뷰해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도들에게 생생한 선교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선교후원사역부는 올해 2월 25일, 4천여 가정에 선교지 기도편지를 발송하면서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선교사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정보수집, 기도편지 작성, 편집 및 디자인, 전화 및 발송, 중보기도 등 모든 사역은 재능기부자들이 하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인천 여성사역, 가을학기 개강

말씀과 기도에 집중

인천 여성사역이 가을학기 문을 활짝 열었다. 어느 때보다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알차다. 연합중보기도 모임(9월12일), 성경일독학교(10월24일), 쿠티방 블레싱(11월12일) 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특히 10월을 여성들의 회복을 위한 달로 정했다. 수요일예배를 ‘내면의 회복’을 주제로 드린다. 4주 동안

안 서경남 목사가 회복과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여성들이 섬김 현장으로 나간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요양원 섬김과 더불어 밤상공동체사역을 새롭게 시작한다. 인천 지역의 신앙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역도 오는 17일부터 전개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우쿨렐레와 건강 스트레칭반도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린다.

/ 조은실 기자



맞춤전도 기러기아빠들 초청

맞춤전도본부가 기러기 아빠들을 초청한다. 지금 기러기 아빠거나 과거에 기러기 아빠 생활을 경험했던 성도라면 누구나 9월 29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로 오면 된다. 기러기 아빠들을 초청한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에 진행될 기러기 아빠 맞춤전도집회로 이어진다.

문의 : 02-3215-3214

*기러기 아빠는 홀로 국내에 남아 가족을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뜻한다.

제47회 메시아 연주회 단원 모집

9월 27일까지 선착순

제47회 메시아 연주회에 참가할 단원을 모집한다.

메시아 연주회는 1964년 처음 막 올라 지금까지 47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70여 개 교회에서 40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연합하는 합창 연주회다. 메시아 연주회에 참가하려면 단원신청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한다.(문의 570-7311) 오디션은 9월 27일 오후 7시30분에 양재 기쁨홀에서 실시한다.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해오면 된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연습을 한다.

올해 12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 열리는 메시아 음악회는 온누리교회가 주관한다. 흥정표 장로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 초교파적 70여 개 교회 연합찬양대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할 예정이다.

2015 상반기 결혼예배 추천

일시: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신관 지하2층), 서빙고, 양재 동시 진행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예약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대리 신청불가)
준비사항: 예약금 50만원 및 예배신랑, 신부의 교인확인증명서(온누리 성도는 제외)
문의: 서빙고 02-3215-3183
양재 02-570-7505

용산노인복지관 요리교실 문 열어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남성 대상

지난 1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할아버지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열었다. 몇쟁이 요리교실은 요리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배우는 과정이다. 요리의 기초, 식자재 구매, 가정식, 한식, 중식, 양식, 특별식, 요리경연대회 등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기

획된 이번 사업은 베이비부머와 할아버지들의 가사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남성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9월부터 11월 까지 3개월 동안 과정이 진행된다. (월,수반/화,목반/토요일반은 12월) 교육비는 2만원이다. 교육문의: 794-6100 손요한 / 박익새 기자

일본인 목회자들 온누리교회 방문

지난 5월 열린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의 감동을 잊지 못한 일본인 목사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온누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은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실행위원장 코바야시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성도14명이다.

한편 11월 14일 개최되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참가자를 오는 21일부터 4주 동안 모집한다. 문의 02-3215-37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배자들 모여라!

예배인도팀 컨퍼런스 ‘ONE SPIRIT’

온누리교회 예배인도팀을 위한 컨퍼런스 ‘ONE SPIRIT’이 오는 20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누리교회 예배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예배인도팀원 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예배인도자, 밴드, 싱어 등 300여

명의 온누리교회 예배 인도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전체 예배인도팀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컨퍼런스는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선포, 온누리교회 예배사역 매뉴얼 공유, 팀별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2014 하반기 찬양사역팀 모집〉

	주사랑(주일2부)	온누리워십코어(주일4부)	도곡-주경배(도곡9시)
서빙고	팀연습: 목pm7:30~9:30 주일am7:20~8:40 오디션: 9월18일 저녁7시(지하 성가대실) 문의: 이승연 010-5350-2872 정의석 총무010-3100-5765	오디션: 9월21일 오후3시30분(지하 성가대실) 문의: 이승연 010-5350-2872	오디션: 9월28일 10시40분(화평홀) 황순규 총무 010-4563-2377
	주의빛(주일1부)	1130찬양사역팀(주일3부)	주기쁨(주일4부)
양재	오디션: 9월21일, 예배 후 두란노홀 박강주 총무 010-4588-5868	팀연습: 주일13시~18시 월29시~22시 오디션: 9월21일, 28일 오후1시(양재 비전홀B) 이주영 총무010-3084-4009	오디션 9월28일, 10월5일 오후5:30, 두란노홀

못다한 여름사역 이야기

온누리교회의 저력



/ 최호림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충남 공주 영정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팀 인원만 100명이 넘는 대규모 아웃리치팀이었다. 많은 인원이 가는 만큼 의료사역, 미용사역, 교회 화장실 건축, 농사일 돕기 등 여러 사역을 했다. 전도도 빼놓을 수 없었다.

우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양, 한방진료를 했다. 한방팀은 진맥, 침, 뜸을, 양방팀은 영양제 주사와 레이저장비를 이용해 감버섯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 주민들이 진료 받는 동안 전도팀은 주민들 곁에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열매는 곧바로 맺혀졌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한 주민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할렐루야!

미용사역팀은 어르신들에게 파마와 커트, 염색을 해드렸다. 온마음이 예뻐졌다면서 좋아하셨다.

또 영정교회 김재준 목사님과 함께 가가호호를 방문해 낡은 전구를 형광등으로 교체했다. 비용과 인원이 적게 들면서 전도효과도 높은 사역이다. 또 현지 목사님과 교회의 영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일석삼조다. 농사일도 도왔다. 철지난 수박냉동과 토마토 포기를 뽑았다. 한여름 비닐하우스는 한증막 같았다. 허리를 숙이고 하는 작업인지라 더 힘들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애써 수확한 수박이 팔리지 않아 눈에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한 것이 더 아프고 힘들었다.

낙후된 교회 시설도 보수했다. 재래식 화장실, 얼룩진 벽... 우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고 빗물에 얼룩진 벽을 도배하고 페인트칠도 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어 감사했다. 아웃리치 일정은 끝났지만 나눔은 계속되고 있다. 공동체 나눔 밴드를 통해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모든 사역들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먼저는 먼저대로 나중은 나중대로



/ 차선희 성도(신용산공동체)

1학기 종강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 국내든지 해외든지 아웃리치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우리 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간 곳은 충북 음성군의 조촌교회다. 버스로 3시간을 달려 조촌교회에 도착했다. 소박한 농촌교회였다.

우리 공동체는 의료봉사, 고추 따기, 마을 어르신 저녁식사 대접, 전도 등의 사역을 했다. 각자 맡은 사역지로 흠어져 섬겼다. 나는 난생 처음 하우스에서 고추를 따다. 생각보다 큰 줄기에 많이 달린 열매들이 신기했다. 햇볕이 먼저 드는 위쪽부터 빨갛게 익는 줄 알았는데 아래쪽 먼저 익는다고 한다.

“먼저 익은 것은 먼저대로, 나중에 익은 것은 나중대로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는구나.”

고추가 익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닮았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낙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는 길에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린 밭이 보였다. 어서 수확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웠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것 아닐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묵히 조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 내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두 분 생각에 마음이 쓰였다.

다음 날, 조촌교회 주보에 충북지역 요양원에 보낼 수건을 모으라는 광고가 나왔다. 집에서 쓰지 않는 수건을 교회로 가져다 달라는 광고였다. 그 광고를 보면서 이웃사랑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나누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함께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가지 은혜



/ 배성한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첫 번째 은혜는 아웃리치 연습장소를 섭외하면서 받았다. 연습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장소 섭외가 그만큼 쉽지 않았다. 아웃리치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사라졌다. 뜻하지 않게 장소가 구해졌기 때문이다. 신길동 소망교회, 서빙고 선교관, 구로치매센터 등 연습할 때마다 장소가 섭외되었다.

두 번째 은혜는 아웃리치 기간 동안 지낼 숙소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아웃리치 팀원을 모집하면서 숙박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그런데 모집인원의 두 배가 아웃리치 참가신청을 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금대교회는 작은 미자립 교회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 숙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금대교회 목사님께서 노인정을 섭외해주셨다.

세 번째 은혜는 학교 운동장을 빌린 것이다. 야외예배와 대형버스를 주차하려면 금대교회 부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했다. 그러나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대여를 거부했다. 공동체 지체들의 중보기도가 이어졌고 금대교회 목사님이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은혜는 릴레이 금식기도와 전도다. 중보기도팀은 전도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과 전도를 병행했더니 22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다섯 번째 은혜는 맑은 날씨다. 태풍 할름이 북상해 아웃리치 기간 동안 큰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었다. 태풍이 비껴 가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다. 그 기도 덕분에 아웃리치 기간 동안 날씨가 맑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비가 내렸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장대비가 내렸다.

여섯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81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다. 아웃리치 준비기간이 짧아 미숙함도 있었지만 팀원들 모두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고 이태열 팀장(서빙고 전도폭발훈련)

내 별칭은 할렐루야

전도는 예수님의 첫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하는데 크게 힘쓰지 않고 내 방식의 믿음생활을 고수해왔다.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바로 이거다.”

그 자리에서 신청했다.

전도폭발훈련 초기 때 복음을 제시하는 질문을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 전문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영하고 있는 회

사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기 전에는 직원들에게 “교회에 나가 봐라!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좋은 책 한권 읽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하는 정도로 전도했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나서부터는 직원들에게 주님을 영접시키는 전도가 가능해졌다. 그 후 나는 전도폭발훈련이 있는 매주 화요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주님은 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 주셨고, 회사에도 많은 축복을 주셨다. 전도하는데 자신이 붙자 회사관련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방문해 전도하거나 각종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라는 영광스런 별칭도 얻게 되었다. 나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졌다.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전도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으신다는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마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자원해서 전도를 요청을 했다.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단단히 자라고 있다.

전도폭발 사역 중에 치유 은사도 주셨다. 뇌수술을 앞둔 60세 남자 가족의 요청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였다. 수술 후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 하루 전부터 기도하며 복음과 치유기도문을 준비했다. 그분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2년 동안의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총무를 거쳐 현재는 주야간 전도폭발훈련 팀장을 맡고 있다. 만약 내가 전도폭발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전도하는 습관을 주셨다. 가장 먼저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금 나는 주님의 일에 대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 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는 전도가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목숨 걸지 않을 수 없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일본 군마에서 온 편지

※ 이 편지는 일본어예배부 일대일 양육팀이 군마에서 실시한 일대일 세미나에 참가한 일본인 목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러브소나타 군마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군마 교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일본교회도 부흥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러브소나타 군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군마실행위원회는 이제 ‘군마 그리스도전도협력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모임입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는 올해 1월 일대일제자양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후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걸리는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3일 만에 배운다는 것이 어려모로 아쉬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쉬움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의 일대일 양육팀이 군마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실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반자과정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치 사람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개척 당시부터 큐티와 일대일 양육을 기초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동반자로서 양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동반자로서 양육 받는 경험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쳤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동반자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양육만 해왔습니다. 제가 동반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동반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

합니다. 나름대로 추측하고 고민해서 일대일 양육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동반자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동반자의 입장을 배운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양육자로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양육한 사람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깨달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반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배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부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들도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군마 교계와 성도들을 위해 직장과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달려와 주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일대일 양육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 교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군마 교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교회가 온누리교회 덕분에 부흥할 것입니다.

/ 카나이 쿠미에 목사
(뉴와인스킨 그리스도교회)



권사순환칼럼 김현심 권사

고난도 축복

2012년 12월 어느 주일 9시 예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단어들이 흘러지면서 컷가에서 웅웅 울렸다. ‘마이크 고장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딸에게 예배 중에 마이크에 이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딸과 사위가 하는 말도 컷가에서 웅웅거렸다. 내 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돌발성 난청이었다. 좋아질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라 조금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주사를 맞으면 잘 들렸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리지 않는 증상이 반복됐다. 입원 중에 목사님이 추천해주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다. 많은 위로를 받았다.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만 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기게 된 것을 감사했다. 아들과 딸, 사위가 모두 의사라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감사했다. 웬일인지 온통 내 마음속에서는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나이가 지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평온했다.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밀려오던 두려움도 사라졌다. 설사 앞으로 듣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듣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더욱 열심히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다.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

나는 2008년 하와이 DTS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에 자기 이름을 넣어 부른 적이 있다. 갑자기 ‘사랑한다. 헌신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라는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아픈 마음을 다 아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꿀 같이 달다는 것을 체험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커져갈 무렵 돌발성 난청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지금도 나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그래도 예전의 30%밖에 알아듣지 못한다. 좋아하는 강의 듣는 것이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쉽지 않다. 주일에는 혼자 아침 7시, 9시 예배를 TV가까이에서 듣고, 가족들과 함께 2시 예배에 가서 일층 앞좌석에 앉는다. 가끔은 화면에 설교 내용이 자막으로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듣지 못하게 되면서 주님의 소리에 더욱 민감해짐을 느낀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예전보다 많이 단순해진 삶도 큰 축복이다. 매일 붓글씨로 성경 한 장씩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다.

육신의 소리는 많이 들리지 않지만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잠언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흰머리와 들리지 않는 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생각하고 싶다.

길 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면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는 큐티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장로순환칼럼 김병순 장로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장로 피택, 장로 사관학교, 장로 장립까지의 일련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겸손과 낮아짐, 섬김 등을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 그 후로 능력은 없으나,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역들을 맡게 되었다. CMN, 선교분과위원회, 양재 이천선교, 차세대, 분당B공동체 사역들을 섬기게 되었다. 여러 사역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인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뜻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잣대로 시간과 계획과 결과(목표)를 정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그렇기에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태도와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본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도착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

다.

하나님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의료선교)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선교와 공출사역, 복음전도와 교육 등 실로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선교분과위원회 내 이천선교본부, TIM, 온누리미션, NGO더멋진세상, CGNTV, BEE, 대학청년부, 차세대, 아버지학교 등 많은 단체들과 CMN이 협력하고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융합선교’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

물론 이런 과정에 난관들도 있다. 사역별, 부서별, 팀별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부서별, 팀별 합심으로 협력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려웠던 사항들이 눈에 띄게 한미음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CMN이 여러 부서들과 융합하여, 제2기 온

누리교회의 행보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인 공회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다투고, 조급해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다. 하나님의 뜻과 힘이 아닌, 나 혼자 힘으로 이루려는 모습과 사랑 없음을 깨닫기도 한다. 그렇기에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부족한 나를 깨우친다.

“나의 완악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공출의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주일강단

하나님과 가이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만 말
씀하셨다면 아마 친로마주의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예
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도 덧붙였
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이사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권세는 넘어서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가이
사와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핑계가 많았습니다. 늘 로마제국 때문에
믿음생활을 할 수 없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답은 핑계라는 것입
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을 사랑하면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
지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록을 원합니다. 무엇
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목록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종
교적 규칙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으셨습
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분별력을 얻을 것입
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어
떤 사람은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
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승리의 길

예수님이 밧(trap)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 피해가는 것이 아
닙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양쪽 모두에게 미움 받

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
사에게’라는 말씀은 결국 세금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로마의 미움
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이 두려워서
피해가는 분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
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밧(trap)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빠져 주었습니다. 양쪽 모
두에게 미움 받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척을 받아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담대하고 용
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가정사역 김연하 최은주 박성우 김성영 이강은 황의석 이 암 최병선 조문희 권수라 한수혁 강은철 강서 곽성욱 하주현 박혜영 김동필 신정숙 장정희 유원규 우성암 유은주 변영애 이은주 서하식 이정숙 박희란 홍천희 김태응 강초 김우정 강경희 박미옥 박희선 유덕순 박경희 이낙웅 오성연 이은지 송현주 이현정 오영미 고양은평	이윤경 문수진 임태식 박진원 정선아 강유정 정세광 박동규 동작 권정현 엄성현 방수진 황정숙 주민자 김정애 마포 곽승미 홍기순 김희영 최승희 노보경 김금산 문현진 김다자 송정희 조무현 염광호 김재정 유은주 김철수 이규배 고덕훈 이은영 김성민 정웅우 김태규 정익성 손석현 북누리 신윤자 김복희 이주애 김인애 정경호 김근희 서대문	신용산 라명희 조명자 마미영 장미영 이명란 김상숙 이명운 최현묵 이성옥 황의숙 이태남 박성복 현향재 이영희 양천 백은희 김수진 신승미 조선녀 이혜경 이옥분 황주영 이미학 여의도 강형구 허필우 김성자 김말예 류경진 이승진 최은결 하류석 영등포구로 김은화 석성숙 김정호 이경수 문경기 배성환 문수정 손남희 배병준 김용만 이영미 한옥순 전상호 김유진	일산 김은희 유태정 김주환 김성현 김재원 이승진 박진영 이성구 윤유조 이명열 임경숙 김명주 정동호 박효수 정양미 이선옥 정원경 송요나 황승미 김희영 중종로 권현희 김성희 김동성 이우규 김수희 윤미숙 김일숙 서영석 김현식 김래래 문동근 김영근 안현주 최진화 왕신정 서연수 유장선 조종진 이승식 박희철 정지연 이영숙 정진해 정경희 천양 김동진 주우현 김유진 엄지용	기타 고은애 고정숙 고정미 진외영 곽선미 박진아 김경아 남궁선 김대겸 김중영 김동숙 김정민 김선겸 이형석 김수는 오혜란 김은정 원현숙 김은아 남궁진 김혜영 이상희 김효성 박미림 박 샘 서정화 박정은 이선화 손은형 서복순 손은혜 황인경 오지혜 김미정 유상원 양맹애 유연형 윤상우 윤석철 왕준식 이영희 김순덕 이지연 박미경 이필용 임광남 임형희 오영희 전수진 우미영 OCC 원성용 최경순	김영진 노경한 김용균 유재협 김윤희 김민영 심나현 김동규 유소운 도영남 이남일 김미희 이상열 유용상 이지영 조옥환 최승욱 권혁은 최윤실 이한성 강남B 노영경 양원경 이찬진 조수영 전병곤 유승관 홍덕희 임봉자 강남C 곽태중 박경민 남기현 이상주 민경업 양근석 안대일 송진용 오규진 이백권 오현선 이은정 유리광 김미영 유은주 이명선 윤명옥 고영신 윤호일 백종욱 이선영 이지원	서초A 공석금 김영례 박인숙 정영희 박준우 이경환 오명진 김 영 한화정 김미혜 서초B 강명옥 이정희 김연희 정문희 박수영 정영아 서우택 최명 이형석 임동훈 조영식 엄종석 조윤애 박정숙 최성원 정철운 함연순 정미영 황석준 한명진 서초C 김영미 박현숙 김일부 공길선 박성구 이상호 신지은 홍사옥 유미정 정정자 최정원 이미경 송파 고창원 김남수	Bridge33+ 강소영 이미학 김동민 편정범 김두희 신영실 김민정 이혜숙 김수환 김예수 김준형 임원식 김지희 오영신 김형섭 안철민 김해정 남진희 박민호 김인식 방호선 김광선 송승환 김정민 안은성 박광관 유선진 이금자 유지혜 이은아 윤지영 박수진 임재서 조영수 지미혜 박해진 Harmony 김태주 권혁기 이보람 이선영 Point5 김환영 서순영 이정은 이한숙	대청 여호수아 강동연 장복준 강수산 류현정 강우선 이기현 강진희 이정옥 길지영 구경호 김성용 이상준 김수정 송송이 김우임 신은주 김잔디 지영주 김준영 이광원 남소영 이현래 남진희 노정희 맹수정 이길라 박기람 유혜명 박성신 이홍구 박재란 김혜연 박영란 박지연 박지영 김영선 박지용 이영우 박지혜 이현옥 박화인 조선아 백진주 장미혜 송진환 배진원 신지현 김현숙 안해린 윤소라 왕향태 장길성	왕현희 이선화 윤명랑 이운경 윤승휘 추정훈 윤일중 오범규 윤진아 노정은 이민진 이미정 이승원 최형규 이시원 이지원 이영운 김현정 이은성 차현아 이인아 김지현 이주미 이희연 이창기 최선홍 이혜인 강은주 이혜진 박미진 임석준 이승민 임은희 윤유나 임종호 장봉기 임현수 이홍구 박영란 박지연 박지영 김영선 박지용 이영우 박지혜 이현옥 박화인 조선아 백진주 장미혜 송진환 배진원 신지현 김현숙 안해린 윤소라 왕향태 장길성	강선희 강소연 김찬솔 고길범 갈렘 김진희 신현미 원지현 박수정 허 민 서병화 요셉 김민규 신현일 김수현 유재은 김수현 이현철 나상진 정미화 나현정 정정섭 박미영 이영혜 서정일 최석민 심진리 신일라 이종민 장윤호 이찬미 박지명 하늘 방지혜 권소영 유보미 조정미 이지호 임종철 허브 조은미 최승화 권하루 류혜석 박요셉 김중호	정한나 이경숙 조장환 유지환 Gil 강영근 최용준 김민지 오수향 김지희 조미선 노애린 이영숙 노애린 김수정 서윤호 한상규 이승하 한승혜 이재령 송용재 이진이 최현진 임방빈 성창섭 장광진 이남재 정재연 이승자 지윤경 정민재 최윤희 이승진 홍영기 김재훈 J4U 김효진 김지은 박영국 황호영 방우리 서진주 엄혜진 김수정 이형화 이은경 홍지연 조승연	Pole2 이소정 유영윤 한경훈 오세원 SNS 김유진 김인기 동주연 이은주 서예진 박혜원 신찬호 이명연 원미지 이명연 유진미 남궁선 W 김요셉 김준영 김유미 배경아 김지영 박경희 노지혜 송기현 박식리 성창섭 박정은 송기현 윤보경 강지연 이유림 복유선 이종선 남애경					